

HEADLINE NEWS

깨끗한 도시를 위한 봄맞이 대청소 실시 (함부르크)

독일 함부르크시는 봄맞이 행사의 하나로 「깨끗한 도시를 위한 봄맞이 대청소」를 4월 4~13일 실시한다. 이 행사는 그동안 시청소과에서 주로 관할해 왔으나, 6번째로 시행되는 금년 행사는 특별히 시환경보건부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학교와 각 사회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번 행사를 홍보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특별히 행사에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단체와 학교를 추천을 통해 시상할 계획이다. 시상 내역은 참가하는 5개 학급당 100유로, 그리고 10명 이상이 참가하는 단체 5개당 100유로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러한 현금 시상은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이다.

시에서는 자원봉사자들과 참가자들에게 손장갑과 쓰레기 봉투를 배부하고, 한데 모아진 쓰레기들을 수거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공공장소, 놀이터, 공원, 학교 주변 등 시 전역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다.

(www.srh.de/servlet/srh/ditdat/aktion)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명·청대 황성구역 보존을 위한 북경시 황성보호계획 수립 (북경)
- ② '기업을 위한 가장 좋은 도시' 선정 (샌디에이고)

도시환경

- ③ 환경보호를 위한 대기오염가스 감축계획 (비엔나)
- ④ 각 분야별 환경소음 대책 수립 (런던)
- ⑤ 푸른도시 건설을 위한 녹색지대 확장계획 (독일 브레멘시)
- ⑥ 페쓰레기 수거 '익스프레스' 서비스 운영 (독일: 함부르크시)

도시교통

- ⑦ 각종 교통관련 신고를 처리하는 「원스톱 신고센터」 신설 (런던)
- ⑧ 지역별 교통정보를 소개하는 무료 안내서 발간 (런던)
- ⑨ 도심부내 공사구간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개설 (미네아폴리스시)
- ⑩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선 교통위반 벌칙금 2배로 부과 (뉴저지주: 트랜턴시)

사회복지

- ⑪ 출산비용 보조위해 종이거저귀 지급 (일본: 가나가와縣)

행재정

- ⑫ 개인정보 분실 대책으로 내부전문조직 및 외부평가기관 설치 (일본: 센다이시)

① 명·청대 황성구역 보존을 위한 북경시 황성보호계획 수립 (북경)

중국 北京市는 지난 2월 26일 「북경황성보호계획」을 공포했다. '북경시 성시규획설계연구원'에서 입안한 이 계획은 자금성을 비롯해 市 중심부 약 200만 평에 이르는 명·청대(明清代) 황성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계획에 따르면, 황성구역내 민가주택인 쓰허웬(四合院)의 경우 전통 건축양식을 지키면서 현대생활에 편리하도록 보수하고, 전통경관을 지키기 위해 기존의 3층 이상 건축물은 단계적으로 철거, 신축건물의 높이는 9미터 이하로 제한한다. 자금성을 제외한 모든 건물의 색채는 회색계열로 제한되며, 3층 이상 또는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개발은 심의를 통해 엄격히 통제된다.

또한 후통(胡同)이라 불리는 옛 골목길을 지키기 위해 도로확장이 금지되고, 황성 내부의 교통량 억제 조치도 시행된다. 황성의 수용용량을 고려해 현재 7만명의 거주인구 중 40~60%를 외곽으로 이주시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주민 생활편의를 위해 전기 승압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황성보호계획이 공포됨에 따라 市는 현재 황성 중심부의 위법건축물 철거작업에 착수했다. (인민일보, 2. 26~27) (www.peopledaily.com.cn)

② '기업을 위한 가장 좋은 도시' 선정 (샌디에이고)

미국 'California CEO'지(誌) 2월호에서 캘리포니아주 가운데 샌디에이고시가 「Best City for Business」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주 전역의 도시를 대상으로 범죄통계자료, 주거비용, 노동이용가능성, 생계비 지수, 상공회의소에서 발간한 보고서들을 토대로 종합적인 기업 상황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이번에 市가 선정된 데에는 급속한 경제발전, 도심의 변화한 사업계획, 계속되는 경제성공에 대한 예상 등이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市는 州정부가 지정한 Enterprise Zones, 연방정부가 지정한 대외 무역지역, 다수의 기업인센티브가 기업들에게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력 확보면에서도 기업은 이 지역의 대학 재학생 20만명 이상이 등록된 인력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www.californiaceo.com에서 찾아볼 수 있다. (www.sandiego.gov/press/030314.shtml)

3] 환경보호를 위한 대기오염가스 감축계획 (비엔나)

오스트리아 비엔나市는 최근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배기가스 감축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市는 2010년을 목표로 공장지역, 발전설비, 관공서, 주택거주 지역, 교통시설 등 5개 부문 36개의 장기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계획 중이다. 감축 대상인 오염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이산화질소, 탄화수소, 유황 질소염 등으로, 특히 CO₂ 가스의 방출을 2010년까지 기존보다 26%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990만톤에 해당하는 CO₂ 가스를 730만톤으로 감축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 1인당 CO₂ 가스를 2010년까지 매년 4, 5톤으로 방출비율을 낮춰야 가능한 수치이다. 市환경부는 환경모범도시 건설을 목표로 장기적으로 대기오염에 적극 대체해 나갈 방침이다.

(www.wien.gv.at/umwelt/klimaschutz/klip/)

4] 각 분야별 환경소음 대책 수립 (런던)

영국 런던市는 최근 「런던 환경소음 대책」을 마련, 리플렛을 제작하여 이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했다. 각 자료 뒤에는 설문지를 첨부하여 소음에 관련된 사항 및 이번 대책에 관한 여론조사를 함께 실시하고 있다.

「런던 환경소음 대책」에는 도로, 교통, 철도, 항공, 도시계획 등 각 분야에서 의 소음 유발 원인 및 대책이 서술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시민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도로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손상된 도로의 원활한 복구와 저소음 도로포장재의 사용, 급출발과 급정거를 유발하지 않는 원활한 교통, 대중교통 활성화 및 걷기와 자전거타기 활성화 등의 대책을 들고 있다. 또 철도소음을 저감하기 위해선 낮은 철로의 정비 및 저소음 열차 도입, 항공 소음을 줄이기 위해선 야간비행 금지 및 저소음 비행기로의 교체, 도시계획상 소음 차단 건물 설계 및 하천·수로·녹지공간 등 조용한 공간의 보호 등의 대책을 소개하고 있다.

(www.london.gov.uk/mayor/strategies/noise/index.jsp)

5 푸른도시 건설을 위한 녹색지대 확장계획 (독일: 브레멘市)

독일 브레멘市 환경부는 최근 '푸른 도시건설'을 위해 녹색지대를 확장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市환경부는 현재 약 1,800ha에 해당하는 녹색지대를 관리 중인데, 앞으로는 주택건설과 도로확장 등 도시계획을 구상할 때에도 이러한 녹색지대를 염두에 두고 진행할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市환경부는 市의 북쪽에 작은 공원들과 잔디구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작은 공원들을 연결하여 녹색지대를 확장하려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市는 시민들이 녹색지대를 보다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와 자전거로를 계속해서 확충할 방침이다. (Die Zeit, 2. 25)

6 페쓰레기 수거 '익스프레스' 서비스 운영 (독일: 함부르크市)

독일 함부르크市의 일반가정은 앞으로 페쓰레기 처리시 일반 페쓰레기 수거와 익스프레스 수거를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일반 페쓰레기 수거는 일정이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시민들은 편의에 따라 전화로 수거를 주문신청할 수 있다. 보통 접수 후 약 3주 정도 기간 안에 市에서 수거해 간다. 이 경우 비용은 8m³까지 41유로인데, 이를 넘을 경우에는 다시 m³당 5유로를 지불해야 한다. 지불편의상 시민이 직접 은행에 선 입금을 하거나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에는 35유로만 지급하면 된다.

그러나 급히 페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 가정에서는 정해진 기간이나 일정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市에서는 최근 익스프레스 서비스 운영을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오전 12시까지 페쓰레기 수거 신청을 하면, 주말을 제외한 다음날 바로 페쓰레기를 수거해 간다. 익스프레스 비용은 처음 주문시 53유로이고, 그 이후부터는 m³당 35유로이다.

(www.hamburg.de/index/1,2709,JGdlbz0zJG9rPTE10DA3JHVrPTE10DExJA_,00.html)

7 각종 교통관련 신고를 처리하는 「원스톱 신고센터」 신설 (런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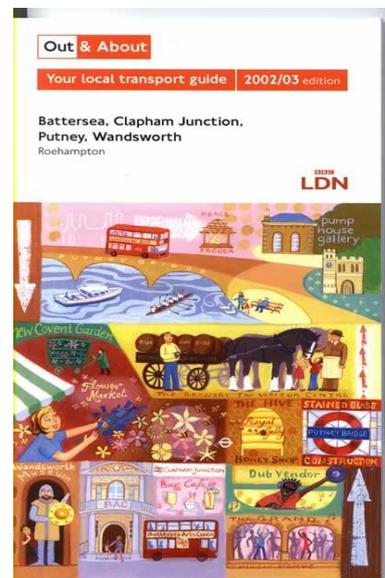
영국 런던시는 최근 시민들의 교통관련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One-Stop Command Centre」를 신설했다. 이 센터는 도로가 파손되었거나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신호등이 있을 때, 신호체계에 혼란이 발생했을 때 등 교통 관련 전반을 다룬다. 지금까지 시는 각 사안별로 신고처를 따로 두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지만, 이제부터는 누구나 문제점을 발견하면 언제든지 0845-305-1234로 전화하거나 www.tfl.gov.uk/streets로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고유번호가 부여되고, 연락처를 남길 경우 문제의 해결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다.

(Metro, 3. 14)

8 지역별 교통정보를 소개하는 무료 안내서 발간 (런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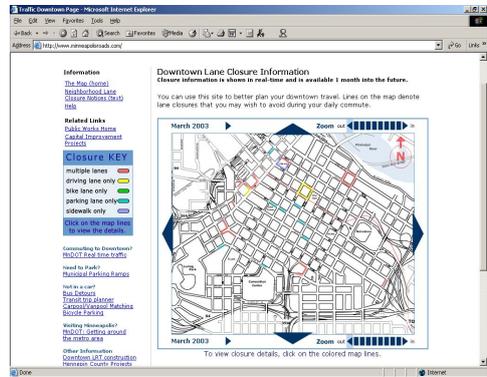
영국 런던시 교통기관인 'Transport for London'은 지역 단위 교통의 편의를 위해서 「지역별 교통정보 가이드」라는 무료 소책자를 발간했다. 이 소책자는 시를 권역별로 나누고 각 권역의 대중교통 서비스와 환승, 자전거 통행로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시 전역을 쉽게 여행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리고 지역별 유명 상점, 레스토랑, 술집의 위치와 가격 정보까지 제시해 관광객들에게도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Metro, 3. 12)



9] 도심부내 공사구간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개설 (미네아폴리스市)

미국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市 당국은 도심구간 통행자의 편의를 위해 도심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도로공사 관련 정보를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는 市가 도심구간내 도로관련 공사를 연간 약 1000건 이상 승인한 결과, 그동안 교통 혼잡으로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이 웹사이트는 市 당국에 접수되는 공사 신청 및 허가 자료를 근거로 도로 공사지점의 정확한 위치, 공사 착수 및 완료예정 시간을 제공한다. 시민들은 이 웹사이트에서 공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도로, 보도, 자전거 전용도로, 노상 주차장 위치 등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예상되는 교통 혼잡지역 및 시간대를 파악하여 도심 통행 계획을 세울 수 있다.



(www.startribune.com/stories/781/3726709.html) (www.minneapolisroads.com/)

10]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선 교통위반 벌칙금 2배로 부과 (뉴저지주: 트렌턴市)

미국 뉴저지주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서 발생하는 과속 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벌칙금을 2배로 부과할 계획이다. 「Operation Restore Safety」라는 이 제도에 따르면, '교통안전 우선구역'으로 지정된 도로구간에서는 앞으로 교통경찰의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다. 주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교통사고량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일반 운전자 및 트럭 운전자를 대표하는 단체들도 이 제도의 시행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주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공사구간 및 속도제한이 높은 도로구간(속도제한 65 mph)에서 벌칙금을 2배로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www.nj.com/news/ledger/index.ssf?/base/news-7/1046848580199460.xml)

출산비용 보조위해 종이기저귀 지급 (일본: 가나가와현)

일본 가나가와현(神奈川縣) 厚木市는 출산으로 인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3년부터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3번째 아이부터는 1년간 종이기저귀를 지급하기로 했다. 일본에서도 ‘출산 축하금’을 지급한 자치체는 있지만, 이러한 현물 지급은 드문 경우이다. 市는 신생아 1명당 4만엔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市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연간 약 2200명이며 이중 약 1%가 셋째 이후 자녀라고 한다. 이에 따라 市는 올해 예산안으로 870만엔을 책정했다.

市는 보육원에서 일하는 155명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기저귀 인기 상품을 조사하고, 그 결과 상위 4종류를 지급품으로 채택했다. 市는 현금 지급도 고려했으나, ‘아기를 위해 쓰여지는 것인가’를 고려하여 기저귀로 결정했다. 또한 분유 지급 의견도 있었지만, 모유로 키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보다 폭넓게 사용되는 종이기저귀를 선택했다. (아사히 신문, 2. 26)

개인정보 분실 대책으로 내부전문조직 및 외부평가기관 설치 (일본: 센다이市)

일본 센다이市는 개인정보 분실 대책으로 市 내부에 안전대책을 위한 전문조직을 만들고, 제3자의 시각에서 市의 대책을 점검하는 외부평가기관을 설치할 계획이다. 최근 市는 성명·급여액·가구원수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 약 20만장을 분실했는데, 재발방지를 위해 市의 개인정보보호조례를 개정하여 개인정보 분실에 대한 벌칙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市는 현재 개인정보 보호가 적절하게 시행되는지 여부를 총체적으로 검사하고 있으며, 4월 초 발족 예정인 내부전문조직과 외부평가기관의 구성원과 권한을 검토중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위탁업체 선정 지침을 만들고, 보안연수의 의무화와 작업중 보안조사를 지침에 포함시킬 예정이라면서, 안전기능 강화를 위해서 위탁업체에 대한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毎日新聞, 3. 19)